

원희룡 장관 “오송 철도클러스터를 충북의 새 성장거점으로 육성”

- 5일 철도기술연구원 오송분원에서 철도클러스터 성공 위한 회의 개최 -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5일 오후 2시 청주 철도기술연구원 오송분원을 찾아 김영환 충청북도지사, 이범석 청주시장과 현안 회의를 가지고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국토교통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.
- 이날 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(3.15)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에 차량정비, 부품, 시스템 기업이 집적할 수 있도록 하고,
 - 철도 R&D센터(연구), 철도종합시험선로(실증) 등에서 미래철도 기술을 발굴하고, 기업들이 신기술을 바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.
 - 또한, 3월 31일 출범한 ‘범정부 추진지원단’을 중심으로 원스톱 인허가 등 산단 조성에 필요한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, 철도기업 유치 지원, 입주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.
- 원 장관은 “오송 철도클러스터를 비롯하여 이번 후보지로 선정한 국가산단을 속도감 있게 조성하는 것이 대통령의 뜻”이라며,
 - “산업단지와 철도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충청북도, 청주시와 원팀을 이루어 산단 조성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, 기업유치에도 만전을 기하여 오송 클러스터가 충북의 새로운 성장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 - 아울러, “국토부와 지자체가 지역이 필요로 하는 성장거점,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지역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루어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2023. 4. 5.

국토교통부 대변인